



1980년 5월 무장한 계엄군이 시민들의 상의를 벗긴 채 위협하고 있다.



도청 진압작전 뒤 계엄군에게 붙잡힌 여학생들이 총을 머리 위에 든 채 무릎을 꿇고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국방부 사진자료에 담긴 5·18 광주민중항쟁

신군부 총칼 앞에서도 광주시민은 용감했다

무자비한 진압·사후 수습 등 1328장
짓밟고 왜곡하고... 참혹한 '오월 만행'
전단 350만장 살포 '선무활동' 기록도

'무분별한 정치인, 종교인, 학생들의 주의·주장과 행동은 국가를 위해 함께 하는 광주사태를 빚었다.'

1980년 5월 계엄령 철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며 독재에 맞서 일어난 시민들을 군홧발로 짓밟으며 유혈 진압한 광주민중항쟁을 바라본 당시 국방부의 시각이다.

당시 국방부가 생산한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5·18 관련 사진자료들은 '한국 민주주의 초석',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교과서' 등으로 불리며

1980년대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광주 민중항쟁을 신군부가 어떻게 왜곡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들 자료는 광주일보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제공받은 것으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5~2007년)가 5·18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국방부가 생산 단계부터 '비공개'로 분류해 놓은데다,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 뒤에도 단 한 차례도 열람하지 않아 여태껏 비공개 자료로 남아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체사진, 신원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했다.

자료들은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 시민 및 계엄군 사진으로 채워졌으며 ▲시위현장 및 진압 사진(458장) ▲아시아자동차 공업주식회사 피해사항 및 피해자랑 사진(425장) ▲계엄군 치안유지·사후 수습 사진(265장) ▲시위 현장 및 진압 사진(180장) 등 모두 1328장이다.

자료들은 당시 신군부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왜곡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5·18 민중항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작성한 '범죄개요'에는 주범을 감내 중으로, 흉남순 변호사 등 4명의 제아

인사와 정동년씨 등 4명의 학생들이 주축이 돼 1980년 3월 1일부터 교내 시위 등을 벌이며 '폭도'로 변해가는 과정을 '왜곡'해 담고 있다.

'정훈활동일지(사태기간중)'이라는 자료에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신군부의 '선무(宣撫) 활동' 상황이 빠곡히 적혀 있다. 군사용어인 '선무 활동'은 적국 영토를 점령했을 때 군이 하는 선전 활동을 일컫는다. 항쟁 기간 중 13종 350만매의 전단을 뿌리고 36회의 공중 및 가두방송을 하는가 하면, 신문·방송을 적국 활용하면서 사태수습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항쟁을 왜곡하기 위한 선전 활동 상황도 드러난다.

또 시위 현장 사진에는 '경찰 방시 모 착용한 극렬분자들', '철모에 수건 마스크한 극렬분자들', '괴격언동자' 등의 설명을 붙여놓는가 하면, 사진

내 특정 인물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 놓기도 했다.

여태껏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도 적지 않았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 진압 작전 이후 총을 머리위에 들고 무릎 꿇린 채 찍은 여자 고교생 등의 사진이나 수습여객의 총부리가 겨냥된 채 손 들고 선 시민 사진 등은 알려지지 않은 사진들이라는 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광주일보 전신인 당시 전담매일신문 사진기자도 항쟁 현장을 누볐던 나경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해당 사진들은 기자들의 접근이 이뤄지기 전, 계엄군들이 도청 진압 직후 찍은 것들로 보인다"면서 "전에 본 적이 없는 의미 있는 귀한 자료"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끝내 외면

보훈처 절충안에 5·18단체 기념식 불참... '반쪽 행사' 우려
오늘 금남로서 전야제... 내일 5·18묘지서 33주년 기념식

정부가 끝내 5·18 광주민중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 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6·7면>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등 5월 단체들은 보훈처가 제시한 절충안이 '정부의 품수'라며 행사 불참 및 천막 농성 강행 입장을 밝혀 '반쪽 기념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6일 5·18 33주년 기념식 분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단의 공연 방식으로 추진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행사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일부 노동·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로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게 보훈처가 내세운 이유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행사에서 꾸준히 불러 왔다는 점과 5·18 관련 단체와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 중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보훈처가 요청한 광주시립합창단의 합창을 거부키로 해 합창 여부도 불투명하다.

5월 단체를 비롯, 광주·전남 기관·단체와 지역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정부 방안은 절충안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 제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경자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말뿐인 '절충안'으로 국민 의견을 듣지 않은 공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5월 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훈처 발표 직후 밤 9시부터 긴급

대응회의를 갖고 한층 수위가 높은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장,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사위원회와 5월 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행기로 했던 5월 3단체장(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의 기념식 불참, 광주·전남진보연대 등의 5·18 국립묘지 앞 천막 농성 등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반쪽 기념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17일 오전 9시 30분 국립 5·18 묘지에서 유족회 주관으로 추모제를 열고 오후 7시 금남로에서 '오월 광주, 다시 평화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전야제를 연다.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국립 5·18 묘지에서 33주년 기념식이 거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월정신 이어받아 '乙위한 정당' 거듭나겠다

민주당 '광주혁신선언'... 오늘 안철수 방문

최근 지도부를 새롭게 꾸민 민주당이 16일 첫발인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을(乙)을 위한 민주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 선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광주 선언은 민주당이 갑(甲)의 정치, 다시 말해 정치 기록권을 버리고 당의 혁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섬기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적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선언문에서 "5월 광주정신은 이제 을(乙)의 존엄을 지키는 민생정치와 복지국가 구현으로 계승돼야 한다"며 "5월 정신이 살아숨쉬는 성지 광주에서, 우리의 모든 기록

권을 내려놓는 각오와 함께 오직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을(乙)을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을(乙)들을 '만민공동회'의 이름으로 묶어낼 것"이라며 범대책기구 발족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또 안철수 의원을 의식한 듯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경쟁과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않겠다"며 "경쟁적 동지관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국민의 명령이 있다면 동지로서 계안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17일 오후 광주를 방문,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전야제에 참석할 뒤 다음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ECO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13 04.20-10.20

호남 지역 농·축수 특산품과 함께하는

제2회 아줌마축제

2013 06.07-06.09 3일간 | 순천 팔마경기장

행사안내

첫째날	6월 7일(금요일) 축하공연 19:00~21:00 시군예술단공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예선) 시낭송대회 농산물개장식 식전공연(난타) 개막식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둘째날	6월 8일(토요일) 시군예술단공연 나도스타다 다문화가족 장기자랑(본선) 아줌마가요제(예선) 추억의7080콘서트
셋째날	6월 9일(일요일) 시군예술단공연 아줌마골든벨 완상의 매직쇼 아줌마댄스 경연대회 아줌마가요제결선 유명가수 축하콘서트

홍보판매부 운영자모집

- 선착순 모집배치
- 참여자격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 참가문의 : 062)220-0555

주최: 순천시 | 후원: 광주일보사
주관: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아리코커뮤니케이션
후원: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농림축산식품부 | NH농협 | 수협 | KB금융그룹 | NH농협 광주지회 | NH농협 전남지역본부

경연장신청: http://cafe.daum.net/azim2 | 문의사항: 062-220-0555